

주현절 후 세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3년 1월 2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54 장 “주와 같이 되기를” (통일 50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 번 시편 5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Matthew) 25:31-46	양용일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축복 있으리라”	찬양대
설 교 Sermon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나의 마음을”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463 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통일 51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지만,

어느새 우리는 익숙함과 식상함에 젖어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완고함과 편협함을 버리지 못했고,

세상의 욕망과 거짓됨과 교만함으로부터 돌이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이제 결단하며 돌이키기 원하오니,

진정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 2:1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개역개정, **마 25:35-36**)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invited me in, I needed clothes and you clothed me, I was sick and you looked after me, I was in prison and you came to visit me.” (NIV, **Matthew 25:35-3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2 (주일)	1/23 (월)	1/24 (화)	1/25 (수)	1/26 (목)	1/27 (금)	1/28 (토)
본문	창23	창24	창25	창26	창27	창28	창29
	마22	마23	마24	마25	마26	마27	마28
	느12	느13	에1	에2	에3	에4	에5
	행22	행23	행24	행25	행26	행27	행28

수/요/ 찬/양/집/회

수요 찬양집회 (1/25오후7:30)

토요 새벽기도회 (1/28 오전6:30)

토/요/ 새/벽/기/도/회

“진리 안에서” (요삼1:1-4)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109:1-16)

지난 주일(1/15) 말씀 – 정재홍 목사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신앙” (누가복음 9:57-62)

사람은 만남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첫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2)두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초청하셨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으며, 3)세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신앙이란? 1)첫째,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며 절대적 가치라는 사실이고 (눅9:58), 2)둘째는, 그 무엇 보다도 긴급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연기되거나 보류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며 (눅 9:60), 마지막 3)셋째는,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눅9:62)입니다. 특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눅 9:62)는 말씀에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긴박성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 유일한 힘이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정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히12:2)

설/교/ 메/모